

전통시장 활성화 토론회 토론문

신동호(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 연구위원)

■ 토론 분야(주제) : 상생산업단지와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 토론 요지 :

- 충남 지역경제의 생산활동으로부터 창출된 부가가치가 자본소득과 임금소득으로 분배되는 과정에서 특히, 임금소득은 지역의 유출비율은 2000년 9.7%에서 2009년 현재, 23.1%로 증가함
 - 이는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쇼핑 등 정주환경의 상대적 열악함에 기인한 것으로 일자리는 충남에서 얻지만 실제 벌어들이는 임금소득의 소비지출은 대전과 수도권(서울, 경기) 등 정주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임
- 이에 충남도는 인력의 역외유출 및 임금소득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생활의 질(Quality of Working Life, QWL)’ 향상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추진 중임
 - 현재, 충남도는 정주환경 개선과 연계한 산업단지 고도화 즉,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임
 - 다만, 정주환경의 개선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므로 이러한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여러 지역의 도시서비스 기능과 생활권을 고려하여 중심 거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에 상생산단을 조성하고자 함
- 상생산단과 연계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우선 상생산단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도시 서비스 기능중 쇼핑 기능을 담당할 전통시장을 상생산단의 영향권 범위 내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공간적 계획을 수립해야 함
 - 또한 상생산단 내 입주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구내 식당 등 상생산단 내에서 소비되는 농수산물을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상생산단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전통시장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에 한하여 전통시장 내 지역 공산품 코너를 운영함으로써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만함

전통시장 활성화 토론회 토론문

강석주(충청남도 투자입지과 상생산업팀장)

▣ 토론 분야(주제) : 전통시장과 상생 산업단지

▣ 토론 요지

그동안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공급에 치중하여, 근로자의 근무환경 및 가족에 대한 정주환경 형성은 미흡하여 근로자의 외지 출퇴근 등으로 지역소득 증대효과가 미흡하고 기업은 인력 채용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생산시설만의 산업단지가 아닌, 생산+업무+주거+교육+의료+문화가 공간적으로 연계되어 편리한 정주환경을 갖춘 산업지역을 조성하여 산업단지 종사자의 정주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과 공존공영 한다는 의미에서 “상생산업단지”라 명하고 도정 5대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구분은 기존 산업단지 사업, 신규 산업단지 사업, 중점관리 사업 등 산업단지 조성시기에 따라 3개 사업지역으로 구분하여 추진전략을 적용하고 있으며

- ① 주거생활여건 개선 : 주택건설 촉진, 재래시장 현대화, 생활편익시설 확대 등
- ② 교육경쟁력 제고 : 자율형 사립고 설립, 지역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 ③ 의료복지 향상 : 종합의료기관 유치, 거점병원 현대화,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
- ④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문화시설 확충 및 접근성 향상, 문화공연 확대, 문화콘텐츠 개발, 지역축제 육성 등
- ⑤ 교통이용 편리 : 도로 확충 등 출퇴근 인프라 구축, 주차난 방지 등
- ⑥ 근로생활의 질 향상 : 일터·배움터·놀이터·쉼터가 조화된 생활공간 창조 등 6개 분야가 중점 추진할 과제입니다.

‘12년도에는 공감대 조성, 제도적 기반 구축, 도 상생산업단지 종합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준비 완료에 중점을 두고 내년부터는 도 상생산업단지 종합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되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중장기 과제로 단계적·권역별 차등적으로 추진하며 3개년간을 1차 사업(‘12-14)기간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향후 2단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생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근로자의 정주 유도로 기업은 근로자의 직주근접에 따른 생산성 향상, 지역은 지역소득 증대로 내발적 성장 토대 마련으로 지역의 생산-소비활동이 연계되는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